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

- '탈국가'의 성장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 경 석
(경희대학교)

1. 서론

90년대 이후 중국문단에서 오랜만에 일어난 ‘순수문학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좌파경향의 평론가들은 문학은 이제 ‘역사의 호출을 거부’하고 ‘순수문학의 정원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새로운 문학경향이 결국에는 ‘새로운 문학적 교조주의 혹은 보수주의로 경도될 것’이라 비판하였지만, 지난 세월 중국문학의 엄숙주의에 대한 작가들의 대대적인 반란의 물살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나라 말기, 소설계혁명 이전까지 儒家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던 전통문학과 5·4 이후 근대성과 계몽정신을 문학창작의 지상과제로 삼았던 계몽주의문학론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순수문학논쟁은 중국문학을 엘리트와 관방에 장악된 주류문학으로 비판하는 ‘민간문학’의 새로운 흥기라고 볼 때, ‘내셔널 알레고리’의 독법으로 중국문학을 읽어내는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화(余华)의 「18살에 떠나는 길(十八岁出门远行)」¹⁾

1) 위화는 「十八岁出门远行」을 1986년 11월16일 탈고하였고, 1987년 『北京文学』 제1기에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 인용된 「十八岁出门远行」은 1989년 作家出版社에서 출판된 『十八岁出门远行』을 저본으로 삼았다.

은 중국문단에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국가와 민족의 알레고리 속에서 개인을 그렸던 루쉰의 시대는 물론이고 문혁 이후 국가가 개인에게 준 상처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임무까지 문학이 담당해야 했던, 소설계혁명 이후 중국문학은 정치와 나선형 구조를 형성하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90년대를 지나면서 더 이상 국가와 민족으로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개인, 즉 ‘빠링허우(80後)세대’가 등장하자, 문학과 정치와의 오랜 동거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의 탈정치화는 엄밀하게 말해 정치 일반으로부터의 탈피라기보다는 ‘국가의 기억’ 바로 국가의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의 도피이자 결별선언이었다.

알 세대의 기억 속에 들러붙어 수시로 그들을 괴롭히던 과거사(문혁)라는 유령은, 이들에게 더 이상 마력(魔力)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²⁾

빠링허우’는 산아제한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소황제(小皇帝)’ 세대라고도 한다. 이들이 2·30대가 된 지금, 그 수는 대략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실행된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질양면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나 문화대혁명이라는 ‘국가의 기억’의 상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에서 혁명교육, 사상교육 등을 받지 않았고, 시장경제의 확대와 함께 성장하였다.

빠링허우 세대는 글로벌 정보화 시대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나 민족담론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지상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현재 중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들은 중국경제의 소비문화를 이끄는 주력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역량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망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이

2) 백지운, 「근대적 주제의 포스트모던적 해결 - 최근 중국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4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p298.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부의 편중화, 권력집중, 부동산 폭등, 인터넷 규제, 등에 대해서 빠링허우는 글로벌 정보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또 이를 자신들의 목소리로 확대재생산해내고 있다. 한편, 빠링허우'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국경제의 중심 노동인력으로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 경제적 역량과 성향을 갖춘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은 더 이상 국가의 기억의 틀 안에 갇혀 있기를 거부한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를 포함하는 중국의 성장서사는 사실 개인의 성장통보다는 국가의 성장통에 주목하였고 여전히 많은 성장서사에서 청소년은 단지 국가의 성장통의 내레이션을 맡은 번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은 국가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장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문단의 선봉파 문학의 대표작가라고 할 수 있는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이 지니고 있는 성장소설의 전형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선봉파 작가 위화

위화는 浙江省 杭州의 의사집안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부모의 영향으로 의대에 진학하여 치과의사가 되었다. 위화는 항상 자신의 치과의사경력을 단지 '사회주의국가의 발치사'에 불과했다고 냉소적으로 회상한다. 5년 후의 사생활을 그만두고 嘉兴文联에서 문학창작수업을 시작한 이후, 北京鲁迅文学院과 北京师范大学 중문과 대학원에서 문예이론을 공부하고 1984년부터 단편소설집 『18살에 떠나는 길』, 『世事如烟』 장편소설 「活着」⁴⁾,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햇빛 찬란한 날들」을 성장서사로 보는 것에 대해 다소 인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 역시 내레이션을 소년의 관점에서 풀어나갈 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장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위화가 우리나라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영화「活着」(한국개봉제목은 「인생」)를 통해서이다. 「活着」은 그의 전위적 창작기법에 변화를 알리는 작품이다. 그는 「活

「在细雨中呼喊」, 「战栗」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의 처녀작 「18살에 떠나는 길」이 발표된 후, 실험적인 성격의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실험주의적 창작경향은 그를 先锋派(전위주의)의 대표작가로 주목받게 하였다. 「18살에 떠나는 길」 역시 일상적 언어와 사고의 질서를 무시하곤 하는데 작품 속의 언어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족하다는 여기는 위화의 창작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창작기법 때문에 독자는 그의 소설에서 알 수 없는 암호나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를 받기도 한다. 위화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모든 작품이 모두 가능한 한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진실이란 일상생활 속의 그러한 진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란 사실상 진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혼합체에 불과하다.⁵⁾

이러한 그의 창작기법은 초기 단편소설 「18살에 떠나는 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 위화는 노벨상을 수상한 모옌에 비해 독자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탈리아의 그린차네 카보우르 문학상, 2002년 중국 작가 최초로 제임스 조이스 기금을 받았고, 2004년 미국 반스 앤 노블의 신인작가상과 프랑스 문학예술 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18살에 떠나는 길」의 성장소설적 의미

성장소설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서구에서 유입된 성장소설은 분명 낮은 장르일 것이다. 그러므로 「18살에 떠나는 길」에 성

着」에서 선봉파의 전위적 창작기법 대신 전통소설의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화의 작품은 「허삼관매혈기」, 「제7일」, 「형제」, 「무더운 여름」, 「4월3일 사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등 다수 번역소개되고 있다.

- 5) 我觉得我所有的创作, 都是在努力更加接近真实. 我的这个真实, 不是生活里的那种真实. 我觉得生活实际上是不真实的, 生活是一种真假参半、鱼目混珠的事物."

장소설이라는 장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성장소설로서 장르적 조건을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성장소설은 우선 중심인물이 성장세대여야 한다. 성장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를 벗어나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어린이나 청소년으로서 이른바 십대(teen-age)를 지칭한다. 이 시기를 흔히 사춘기 또는 미성년기라고도 하고, 교육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포괄적으로 ‘아동기’라고도 한다.⁶⁾ 성장소설은 당연히 중심인물의 생물학적 조건이 이 세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볼 때 「18살에 떠나는 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세대를 다루고 있다.

둘째, 등장인물이 일정기간 동안 자라면서 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 시기, 예컨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한정된 시기에 집중된 사건이나 사연을 다루고 있다는 것 보다는 변화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어야 한다. 이것은 성장소설을 개념 짓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여기서 변화하는 과정이란 청소년기와는 다른 세계관과 인식의 층위에 도달하는 모습에 대한 서술이어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중심인물의 이동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작품의 구조나 서술이나 전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등장인물로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대부분 일인칭 소설인 경우가 많다.

성장소설이 중국고전문학사의 전통적인 서사장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성장소설이란 서구에서 유입된 소설장르로서 근대시민국가의 출현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성장소설은 근대시민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저변에 깔린 소설의 형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장소설의 서사는 종종 개인의 성장과 사회변화의 형태와 나선형구조로 얽혀가며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제정의 붕괴, 반식민지와 내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전정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소설은 작품의 대상 독자를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소설에 대해 ‘주독자 층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소설이다.’는 주장은 개념적 오해라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이 청소년인 것과 대상 독자가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라는 급격한 역사의 파행을 반세기만에 모두 체험했던 중국인에게 있어서 근현대사 자체가 성장소설적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3. '탈국가'의 성장서사

「18살에 떠나는 길」이 발표된 이후 많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소설의 결말을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도대체 위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소설의 결말부분은 기존의 서사양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제시한다. 마치 도입부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끝난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다. 내가 떠나 거라.”

“저보고 떠나라고요?”

“그렇다. 너도 이미 18살이 되었잖니. 너도 바깥세상을 알아야지.”

그리고 나는 그 빨강고 예쁜 배낭을 등에 메었다. 아버지는 내 뒤통수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는데 마치 땅아지의 엉덩이를 쳐 주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을 뛰쳐 나갔다. 마치 기뻐 날뛰는 한 마리 땅아지처럼 나갔던 것이다.7)

이처럼 마무리되는 결말 속에서 독자가 받은 느낌은 공허함이나 혼란스러움일 것이다. 위화는 전통적 서사양식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취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단순함과 간결함이 이해의 용이함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기존의 인과관계에 의한 플롯의 구조는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이다.

7) 父亲转过身来温和地说：“不，是让你出门。”“让我出门？”“是的，你已经十八了，你应该去认识一下外面的世界了。”后来我就背起了那个漂亮的红背包，父亲在我脑后拍了一下，就像在马屁股上拍了一下。于是我欢快地冲出了家门，像一匹兴高采烈的马一样欢快地奔跑了起来。「十八歲出門遠行」

주인공 ‘나’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 처음엔 여관이고 뭐고 그날 밤을 어디에서 해결할건지 조차 관심이 없다. 구불구불한 길을 뚝단 배처럼 배회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바람은 상쾌했고, 오래 걸었지만 피곤하지 않다. 지나는 차들이 자신을 무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현재 ‘재미’있고 ‘유쾌’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걸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석양이 펼쳐질 때까지 걸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관을 찾지 않았다.⁸⁾

그러나 어느 순간 차를 타고 싶어진다. 이 요구 역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이고 그게 이유의 전부이다. 그러다가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마냥 재밌던 상황에 변화가 찾아온다. 그 변화는 소년에게 “아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하나?”라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길을 떠난 이후, 걱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이제 ‘재미’가 아닌 ‘필요’해서 차를 생각해내고 필사적으로 차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가득 실은 트럭을 만나게 된다. 그는 트럭에 실린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훔치지는 않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단 한 순간도 사과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주기 전까지는 안 먹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다니 사과를 마구 훔쳐가고 이를 저지하는 ‘나’를 때리고 조롱한다. 자신이 정의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그런데 사과를 지키려는 자신의 투쟁을 칭찬하리라 믿었던 트럭운전수마저 그를 멸시하듯 비웃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방마저 도둑맞는다. 남은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망가진 트럭과 ‘나’뿐이다.

8) 所以尽管走了一天. 可我一点也不累. 我就这样从早晨里穿过, 现在走进里下午的尾声. 而且还看到了黄昏的头发. 但是我还没走进一家旅店. 「十八岁出门远行」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주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심하게 망가지고 뜯겨나간 트럭과 상처입은 나 뿐이었다. 나는 매우 측은한 마음으로 트럭을 바라보았고 트럭도 측은한 듯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트럭을 어루만졌다. 몹시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산의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소리와 같이 들렸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트럭처럼 차가워지는 듯이 느껴졌다.⁹⁾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변한다. 더 이상 모든 상황은 재미가 아니라 ‘필요’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주인공이 떠난 길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그동안 믿어왔던 교과서적인 정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정의는 현실사회에서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많음을 알게 된다. 주인공은 제 사과도 아니고 남의 트럭과 사과를 정의감 하나로 지키려고 분투하지만 형편없이 두들겨 맞게 되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트럭과 사과의 주인조차 그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보내는 상황이다.

그때 나는 그 트럭 운전사가 트랙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트랙터 뒤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며 큰소리로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 내가 떼고 있던 그 빨간 배낭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배낭을 훔친 것이다. 배낭 안에는 내 옷과 돈이 들어 있었고 약간의 먹을 것과 책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 배낭을 빼앗은 것이다.¹⁰⁾

위화는 이 지점에서 왜 트럭운전수가 소년을 비웃고 멸시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당연히 나의 조력자, 또는 나의 피조력자라고 생각했던 인

-
- 9) 天色完全黑了, 四周什么都没有. 只有遍体鳞伤的汽车和遍体鳞伤的我. 我无限悲伤地看着汽车, 汽车也无限悲伤地看着我. 我伸出手去抚摸了它. 它浑身冰凉. 那时候开始起风了, 风很大, 山上树叶摇动时的声音像是海涛的声音, 这声音使我恐惧, 使我也像汽车一样浑身冰凉. 「十八岁出门远行」
- 10) 这时我看到那个司机也跳到拖拉机上去了. 他在车斗里坐下来后还在朝我哈哈大笑. 我看到他手里抱着的是我那个红色的背包. 他把我的背包抢走了. 背包里有我的衣服和我的钱, 还有食品和书. 可他把我的背包抢走了. 「十八岁出门远行」

물들은 기대와는 어긋난 행동을 한다. 위화는 이에 대해 일상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극과 같은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위적 서사는 역사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국가의 기억’을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그가 추구하는 진실이란 일상 또는 역사의 인과관계 속에서 규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감당해내야 할, 눈앞에 펼쳐지고 피부로 다가온 현실 앞에서 피로를 느끼고 일단 몸을 누이고 쉴 곳을 찾는다. 그리고 달콤한 꿈을 꾸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무엇을 내게 준다. 망가지고 차갑게 식은 트럭 차체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주인공의 회상은 누구나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떠오르게 되는 상황일 것이고 이 부분은 독자가 「18살에 떠나는 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플롯일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은, 항상 현재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망가진 트럭의 품 안에서 그 맑고 따뜻했던 점심 무렵을 생각했다. 그날의 햇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는 아직 분명히 기억한다. 그날 밖에서 즐겁게 만나질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아버지가 집안에서 빨간색 배낭을 닦고 있었다. 나는 창밖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지나요?”¹¹⁾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은 어디까지나 냉랭한 트럭 안에서 꾸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당장은 행복해질 수 없다. 소설의 결말에서 소년이 길을 떠나는 장면은 다시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출발의 시점은 행복하다. 그러나 그 시점의 꿈에서 깨어나면 냉랭한 트럭 안의 현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는 또다시 여관을 찾아 떠나야 하고, 또다시 길 위를 헤매야 할 것이다.

「18살에 떠나는 길」을 읽는 독자들은 의문을 갖는다. 주인공 ‘나’는 집을 떠나 행복했던 것일까? 적어도 결구에서의 주인공의 ‘만족’은 자신이 맞닥뜨

11) 我躺在汽车的心窝里，想起了那么一个晴朗温和的中午，那时的阳光非常美丽。我记得自己在外边高高兴兴地玩了半天，然后我回家了。在窗外看到父亲正在屋内整理一个红色的背包，我扑在窗口问：“爸爸，你要出门？”
「十八岁出门远行」

리게 되는 슬픔, 사회에 대한 두려움,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현실을 상쇄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을 사회배경과 결부시키지 않고 완벽히 분리시켜서 다가갈 때에 더 강하게 느껴진다. 위화는 작품 속에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국가의 기억’을 배제하고 있다. 위화에게 있어서 시대적 상황이나 상징을 염두에 두고 창작을 하게 되면 사고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III. 결 론

자본과 일상이 긴밀하게 결합한 사회에서 문학이 대중문화의 주변으로 밀려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국가의 계몽과 선전수단으로 문학이 누려왔던 프리미엄적 지위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득력의 상실은 자본의 사회적 포섭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로서의 지위조차도 상실하고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 어쩌면 근 100년간 체제의 보호 하에 있었던 문학이 시장의 바다에 내던져졌고, 작가들 또한 그것을 오랜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기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는 곧 신문학이 구 문학으로 퇴색되는 지점이 되었으며 국가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서사를 요구하는 기점이 되었다.¹²⁾ 그리고 그 기점에 많은 새로운 창작이 등장하였고 위화의 「18세에 떠나는 길」 역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문단 역시 현재 문학의 위기를 고민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문학의 위기는 과연 문학 본연의 실재적 위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문학의 한 ‘패턴’의

12) 물론 중국문단이 '탈국가'의 서사를 중심에 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국가적 기억을 현재의 창작영역에서 복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국가'를 상상하는 문학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학이 역사로부터 소외되거나 의미를 상실해가는 기점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문단은 자의반 타의반 국가적 기억과 진지하게 대면하기를 회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문단에 불어온 글로벌(외국에 번역소개나 노벨상 수상 등)과 시장주의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만 잊고 서구의 작가들이 누렸던 것들을 갈망하는 왜곡을 낳게 된다. 고통스러운 국가의 기억에서 벗어나 서구화된 개인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지점에서 문학의 위기는 시작된다. 한국문학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위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의 위기 역시 중층적이다. 그것은 문혁시절에 소년기를 보냈던 위화의 세대적 복잡성에 기인한다. 위화와 같은 지청(知靑)세대들은 문혁을 이성적으로 기억하기엔 너무 미성숙했고 그것을 충분히 아파하기도 전에 개혁개방시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문혁의 중심세대 작가에 비해 과거를 등지고 조롱하는 것이 쉬웠던 한편, 국가의 성장통을 벗어나 개인의 성장통에 주목하는 성장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은 성장소설로서, 서사 속에서 국가의 기억은 해체되고 새로운 개인의 출현과 가치관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문단에 '탈국가', '탈민족'을 구상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대국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두운 과거사를 갖지 않은 나라는 드물 것이다. 그리고 21세기까지도 많은 국가의 기억,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식민통치, 좌우대립, 동족상잔, 양민학살 등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여전히 진행형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전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문화대혁명'은 가장 가깝고 아픈 과거사일 것이다.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이념과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이념도 없고 계급도 없는 투쟁이었다. 그 동란의 과정에서 봉건중국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위해 주력군으로 나섰던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참하게 배신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들은 그 십년 동란이 끝난 이후, 이 근대사의 비극을 창작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장통을 개인의 성장통과 등치시켜가며 이것을 성장서사로 변용했던 것은 아닐까.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은 국가의 성장통을 배제하고 개인의 성장통에 온전히 주목했다는 점에서 중국문단에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보도루 저, 강진아 역, 『중국근현대사4』, 삼천리, 2013.
- 김경석, 「<骆驼祥子>와 <十七岁的单车>에 투영된 도시문명」, 『중국어문학논집』 제43호, 2007.
- 김영미, 『현대중국의 새로운 이미지언어』, 이담Books, 2014.
- 백지운, 「근대적 주제의 포스트모던적 해결 - 최근 중국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43호, 2007.
- 이옥연,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余华, 『十八岁出门远行』, 作家出版社, 1989.
- 陈思和, 『陈思和自选集』, 广西师范大学出版社, 1997.

❖ ABSTRACT

A Study on WiHua's *Road Leaving at 18 Years*
- as a Meaning of Typical Growth Story

Kim, Kyung-Seok

Every country has a dark histor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modern state. Many countries have until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n East Asia, colonialism, has experienced conflict influenced, racial discrimination, the trauma of such massacre. Such a dark history in many countries are also still in progress. Dark History of China, which maintains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is the '*Cultural Revolution(Wenhua da Geming)*'. '*Cultural Revolution*' is neither the outer aspect of the ideological struggle, but in fact it was not even class struggle ideology and class struggle. Put an end to the feudal intellectuals in China in the course of the tragedy stood and lead to build a new China suffered the humiliation of being betrayed from state power. Chinese writers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ended, was creat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reflects the tragedy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country(national memory) is suffering from the pain and suffering the same growth process as it saw this novel growth experienced in the personal growth process. "*Road leaving at 18 years*" of WiHua has ruled out the pain of growing national attention wholly to personal growth and pain. Such "*Road leaving at 18 years*" in the sens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typical growth story in China Contemporary Literature.

Key Words

위화, 『18살에 떠나는 길』, 성장소설, 국가의 기억, 문화대혁명
WiHua, "*Road Leaving at 18 Years*", a typical growth story, national memory, Cultural Revolution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